

자연재해 예방 종합대책 마련 행정력 집중

침수 취약지역 전담 부서제 운영 비상용 모래주머니 등 추가 배치 등산 시 진드기 감염병 주의 당부

광주시 남구가 가을 태풍으로 인한 집중 호우, 진드기 감염병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구 오는 10월까지 집중 호우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7개 구역 8곳에 대한 구역별 전담 부서제를 운영하고, 가게 점주 및 주민들과 힘을 합해 하수 유입구를 관리하는 시민 관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 호우가 쏟아진 지난 피해 사례를 분석해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 관리를 위해 구청 내 8개과와 6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묶어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전담 부서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구청에서 지정한 침수 취약지역 8곳은 ▲백운광장 ▲백운초 주변 ▲주월중 주변 ▲정일품 사거리 ▲모아 산부인과 ▲포도원 교회 주변 ▲벨엘교회 주변 ▲국제양공장 주변 등이며 각 구역

별 전담인원은 총 47명이다.

또한, 상가 점주 및 주민들이 거주지 주변 배수관을 점검하는 '하수 유입구 시민 관리제'를 확대한다.

현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민 관리자는 총 18명으로,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침수 취약지역 8곳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남구는 배수구 주변에 위치한 상가 점주 및 주민들과 연계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 중이며, 활동 인원에 늘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집중 호우시 물길의 흐름을 바꾸는 모래주머니도 침수 피해 예상지역에 추가로 배치했다.

앞서 남구는 지난 6월까지 저지대 아파트 및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등 45곳에 모래주머니 5,500여개를 배치한데 이어 최근 지역 13곳에 모래주머니 1,350개를 추가로 공급했다.

또 진월동과 월산동 등 5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상용 모래주머니 410개를 배부했으며, 향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농사일과 등산 등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가을철이 다가옴에 따라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 주의도 당부했다.

지역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중 쯤쯤가무시증에 대한 신고는 지난 2019년 15건, 2020년 32건, 지난해 32건으로 꾸준히 발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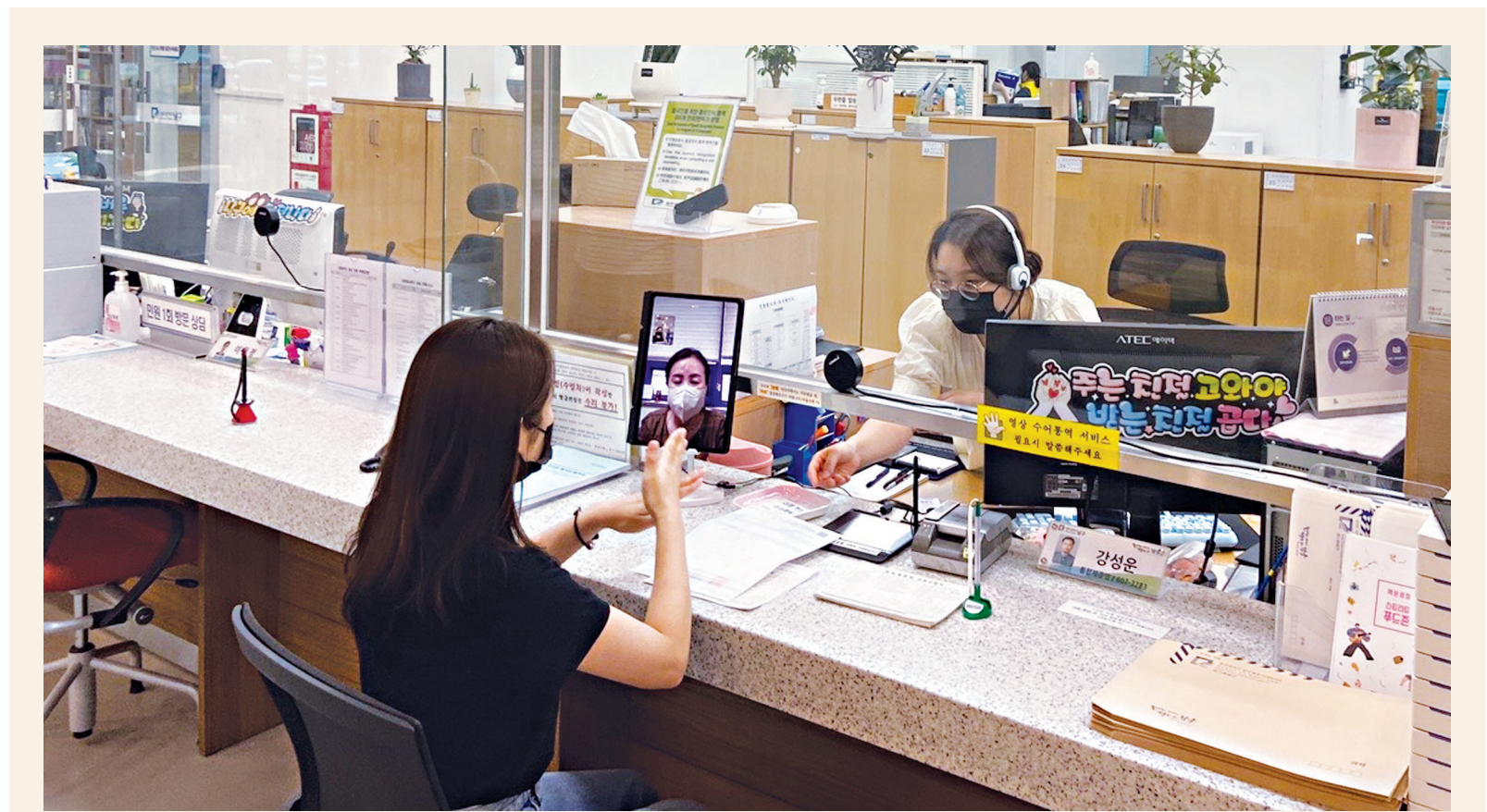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감염된 사례로 보고된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5건, 지난해 4건이다.

쯤쯤가무시증은 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의한 열성 질환으로, 연중 발생하나 10~12월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열과 오한,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관찰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치명률이 18.4%에 달하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 농작업이 많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주말 농장, 등산을 하는 일반인에게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감병내 구청장은 "돌발적인 기상 상황이 언제 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준비된 자세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가을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광주시 남구가 장애를 가진 민원인과의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지역 자치구 최초로 '태블릿 수어 영상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남구청 제공

지역 자치구 최초 '수어 영상 통역서비스'

시 장애인복지관과 협약

광주시 남구는 청각 및 언어, 시각 장애인의 언어장벽 해소를 통한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지역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태블릿 수어 영상 통역 및 민원서류 음성변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태블릿 수어 영상 통역 서비스는 민선 8기 감병내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민원 행정 서비스이다.

남구는 지난달 23일 구청에서 태블릿 PC를 통한 수어 영상 통역 역할을 수행하는 광

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스마트 민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민원인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및 통역사가 태블릿 영상을 통해 3자간 양방향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종합민원실을 방문한 장애인 민원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면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통역사와 민원인간 실시간 영상 수어 통역이 이뤄지며, 수어 통역이 완료되면 통역사가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 내용을 즉각 전달하는 구조이다.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해 태블릿 PC에 설치된 음성변환 어플리케이션 '보이스 아이'를

이용해 민원서류에 인쇄된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남구는 현재 청각 및 언어,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종합민원실 10개 창구 가운데 5번 창구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창구로 마련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감병내 구청장은 "의사소통의 장벽을 없애 사회적 약자 민원에게 더 다가서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장애인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수술·제반 비용 90% 지급

광주시 남구는 유기동물 발생 및 들개 번식 예방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집 밖의 공간에서 진돗개 유사 품종을 키우는 견주들 대상으로 하며, 해당 견주에게 중성화 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반려견 기준은 실외에서 키우는 사육견 가운데 성체 기준으로 10kg 이상이며, 진돗개 유사 품종으로 연령이 5개월 이상 6년 미만이다.

신청 자격은 남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등

본과 동물등록증상 주소 및 소유자, 반려견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지정 동물병원으로 반려견을 직접 운송할 수 있는 견주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중성화 수술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남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견주를 1순위로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자 견주를 차순위로 지원해 총 20마리를 중성화 수술할 방침이다.

중성화 수술 지원 대상자에게는 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일례로 반려견이 20kg 이상인 암컷의 수술 비용은 40만원으로, 이중 3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민찬기 기자

'돌봄 이웃 공무원 1대1 멘토링' 추진

광주시 남구는 5·6급 공무원들이 돌봄 이웃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내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이웃을 대상으로 1대 1 멘토링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1대 1 행복 멘토링 지원 사업은 돌봄 이웃과 공무원이 결연을 맺어 해당 가정의 환경을 파악한 뒤 멘토 공무원의 경험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남구는 행복 멘토링 지원사업의 대상인 67세대를 발굴했으며, 이들 세대 가운데 관련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멘토링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청 5급 간부 공무원과 멘토 참여를 희망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이달부터 돌봄 이웃을 대상으로 1대 1 멘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남구는 멘토링 희망 세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민찬기 기자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특화 제품 개발 지원

광주시 남구는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경쟁력 향상과 완성도 높은 제품 개발을 위해 지역특화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사업 대상은 사회적 경제기업 특화제품 개발을 위해 지역에 소재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가운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

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남구는 9월 초순께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단독형 2곳과 공동형 1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단독형 기업에는 1곳당 300만원을, 공동형 선정 기업에는 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민찬기 기자

주식회사

채움

대표이사 박갑수

소방자재 TEL. 062_375_2428
전문업체 광주시 서구 칠성로 27, 3층